2026년 세종도서 2차 회의 심사 총평

[심사 총평]

2026년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는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역사/지리/관광의 총 9개 분과, 총 4,650종의 접수된 도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차 심사에서는 총 440종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개정판 여부 및 국고 중복 지원 등의 제외 또는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11 종을 제외한 429 종의 도서들이 2차 심사에서 최종선정되었다.

최종 선정 도서들은 해당 저자(들)의 관심 분야 및 주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친 통찰과 고민을 통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되어 교양도서로서 충분한 내용과 품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하여 특히 최신 출판문화 동향을 반영하여 기획 차원에서부터 주제 선정과 집필, 그리고 편집에 이르기까지 독자 친화적인 흥미성, 가독성, 교육성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류 분과에서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 철학/심리학/윤리학 분과에서는 심리, 생활, 정신건강 및 인간의 실존에 관한 도서들, 종교 분과에서는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의 연관성과 종교적 함의에 관한 도서들, 사회과학 분과에서는 AI의 시대의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도서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주제로 한 도서들, 기술과학 분과에서는 AI와 IT 시대에 급변하는 인류문명과 기술에 관한 도서들, 예술 분과에서는 예술을 통한 인간과 인류문화의 교류 및 확장에 관한 도서들, 언어 분과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언어들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등에 관한 도서들, 마지막으로 역사/지리/관광 분과에서는 국내외 역사, 지리, 관광 분야에 관한 다양한 도서들이 선정되었다.

[분야별 총평]

ㅇ 총류

202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상정된 91권 도서들의 기획과 내용이 학습과 독서, 인문학과 문해력,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인물이나 사물의 역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었다. 상정된 도서들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들이 쉽게 과학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초 도서에서부터 중고생들의 진로, 진학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도서까지 폭 넓은 범위를 다루었다.

또한, 철학, 역사, 환경 등 인문학 관련 서적도 풍부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구 욕구를 자극하는 훌륭한 도서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정 도서 중에서 본문에서 면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출판물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았으며, 본문 편집 디자인을 전단이나 포스터처럼 장식체를 사용하거나 자간을 지나치게 좁혀서 도서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도서가 다수 있어 향후 출판물의 편집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의 도서는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기초 및 활용 관련 도서의 비중이 높았다. 기본적인 AI 개념부터 생성형 AI와 LLM의 활용, 프롬프트 작성법, 그림・영상・코드를 만들어 내는 활용,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개발까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범주의 도서들이 상정되었다. 또한 초중고 교육에서 캔바, 피그마, 미리캔버스를 수업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안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3D 프린팅과 생성형 AI를 체험할 수 있는 교재 등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서들이 다수 상정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와 응용에 필요한 도서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독자들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독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를 교양부문 도서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 우수 도서를 선정하였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세종도서 지원 사업은 향후 더욱 필요하며,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ㅇ 종교

2026년 종교 분야 도서에 관해 심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루는 주제가 한층 다양해졌다. 기독교 분야에서는 개론서를 비롯하여 성서와 교회사, 영성과 신앙 실천, 신앙교육, 새로운 형식의 묵상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교양 도서를 만날 수 있었다. 불교와 기타 종교 분야에서도 경전 해석, 명상, 심리, 종교학 이론, 신화, 미술평론, 고전 번역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 도서들이 출간되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기획이 눈에 띄었다. 제도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식을 통해 기독교 교양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한 주석서, 종교적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다룬 안내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담은 묵상서 등이 그 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신한 기획도 확인되었다. 불교 분야에서는 과학

과 불교 교리를 연결하거나 사찰 순례, 미술평론, 종교적 상징물 등 구체적인 매체를 통해 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셋째, 학문성과 대중성의 균형을 갖춘 도서가 많았다. 심사자들은 이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전문적인 학술서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책은 전문적 내용을 완성도 있게 전달하여 일반 독자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여러 심사자는 이 도서들이 학술적 신뢰성과 일반 독자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했으며, 학술적 엄밀성과 대중적 가독성을 균형 있게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2026년 종교 분야 교양서의 전반적인 완성도와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데에도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심사자들이 비판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있다. 앞서 기획과 주제의 참신성을 언급했지만, 종교 분야의 상당수 도서는 여전히 일반 대중을 위한 교양서의 성격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다. 설교집, 성경 주석서, 신앙 에세이처럼 특정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을 주된 독자로 삼은 책은 일반 대중을 위한 교양서로 추천하기 어려웠다. 전공 서적이나 학술서의 성격이 강한 책, 간증 형식으로 인해 주관성이 두드러지는 책 역시 교양서로 적합하지 않다는 데 심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내용의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익숙한 지식을 되풀이하거나 호교론적 찬미로 일관하는 책, 기존 신앙을 천편일률적으로 변주하거나 교리적 경직성에 머무르는 신앙서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사회적·시대적 문제와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교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와 생태환경 문제를 성찰하고 현대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양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심사자들은 올해 종교 분야 교양서가 형식의 다양성과 완성도 면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나, '일반 대중을 위한 교양서'라는 본래 취지에 더욱 충실하고 시대적·사회적 통찰을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는 신앙공동체 내부의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지닌 창의적인 저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분열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통찰력과 대안적 사유, 포용의 태도를 길러주는 종교 교양서가 더욱 활발하게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ㅇ 철학/윤리학/심리학

올해 [철학/윤리학/심리학] 분야의 교양 도서들에는 현대 사회가 부딪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과 그 해법을 모색하는 책들이 많았다. 문제의식의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치열한 경쟁 사

회에서 겪어야 하는 개인의 심리 문제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돌봄의 문제, 나아가 동물이나 AI와 같은 비인간 존재와 어떻게 공존할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심리학, 철학, 윤리학적 문제의식 속에서 다루어졌다. 인문 교양이라는 관점에서 한 편으로 당연한 경향이기도 하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일상의 경험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심리학 이론에서 성찰하는 책이 많았으며, 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는 동·서양의 고전이나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는 책이 많았다.

[철학/윤리학/심리학] 분야 도서들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은 이른바 위기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의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를 일상의 문제와 인문학적 담론들을 결합해 가독성 높은 방식으로 서술한 책들이 많았다는 점은 교양서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초고령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각각의 세대에 걸맞게 서술한 책들 또한 시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심사자들은 많은 도서가 다소 피상적인 수준의 내용에 머물러 깊이 있는 사유와 독서 체험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표현하였다. 최근의 도서 시장에서 소구력 있는 기획을 단순 반복한 책이나 유튜브 등에서 인기 있는 내용을 책으로 재편집한 수준의 책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독자들의 읽기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윤리학/심리학] 분야의 심사자들은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출품된 훌륭한 도서들에서 그 기획과 내용이 참신하고 독자에게 깊이 있는 독서 체험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이 그 결과이다. 생성형 AI가 거의 모든 지적 활동을 대체할 것처럼 보이는 요즘 책 읽기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책이 새로운 변화에 마주한 현대인에게 훌륭한 지적 길라잡이가 되길 고대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이 책을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증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ㅇ 사회과학

올해 상정된 도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민주주의와 시민성, 경제 불확실성과 자산관리, 교육혁신, 사회적 불평등과 돌봄, 국제질서의 변화 등 동시대 핵심 의제를 시의성 있게 반영한 도서들이 다수 출간

되었습니다. 사회과학 도서의 외연과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서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문제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정확성뿐 아니라 교양 도서로서의 공공성, 독창성, 가독성, 균형 잡힌 시각, 사회적 확장성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학문적 성과를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면서도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시민의 사고를 확장하는 도서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 저작과,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며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도서들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AI, 부동산/주식 투자, 자기계발 등 특정 주제에 출판이 집중되면서 유사한 내용과 반복적인 접근이 적지 않았으며, 시류를 반영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학문적 깊이와 장기적 가치, 독창성이 다소 부족한 도서들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AI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통찰을 담은 저작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종합하면, 올해 사회과학 분야 저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변화와 과제를 폭넓고 균형 있게 담아내며, 독자에게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과학 도서가 단기적인 사회현상이나 유행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학문성, 대중성을 조화롭게 갖춘 양서로 발전하여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ㅇ 자연과학

과학적인 기초 개념을 쉽게 설명한 입문서부터 최신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도서까지 다양한 수준의 책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 도서에서 부터 지구과학 분야의 우주, 행성과학, 해양, 기상 관련 주제와 환경 분야의 기후위기, 생태, 환경교육 관련 주제를 폭넓게 다루었으며, 양자 개념과 AI 기술을 연결하여 논의한 도서, 과학 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을 연결하여 논의한 다채로운 서적, 특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자연과학, 생명과학, 생물학 분야에서의 주요 서적들은 환경문제, 인공지능, 생명과학, 뇌과학, 감염병, 인류 진화, 과학정책, 과학사, 과학기술윤리 등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 의제를 폭넓게 다른 도서들이 인상적이였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동물, 식물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서의 작은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색하는 기회

를 통해서 교양 도서에서부터 전문 서적까지 매우 좋은 도서들이 출판된 것은 독자들에게 많은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6년도 자연과학분야 도서들 중 일부 도서들은 매우 제한적인 내용 구성과 기획이 흥미롭지 못하는 경우의 서적들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서들이 과학을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사회적, 제도적 활동으로 이해하게 하는 시도, 과학과 인문학, 예술, 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시각을 제공하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었으며,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흥미로운 사례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일반 독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어 과학적 소양 함양은 물론 비판적 사고와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수 교양 도서로서의 가치를 지녔으며, 또 다른 흥미로운 서적들로 일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낸 서적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도서들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기초 이론과 개념적 깊이를 함께 갖추고 있어 과학 교양서로서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몇몇 수학과 과학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인문학적 사유와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돋보였을 뿐 아니라 선정 도서들이 현대 과학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ㅇ 기술과학

금년도 기술과학 분야에 상정된 도서들은 기계・건축・공학, 생활과학, 육아・부모교육, 의학・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 부모교육과 아동 발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현대사회의 핵심 이슈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충실하게 다루어졌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저자들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돋보였다.

기계・건축・공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도서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술 활용에 관한 방법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적 측면, 사회적 영향, 미래사회의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기술을 단순한 도구적 활용 차원을 넘어 인간과 사회, 도시와 공간, 기후위기 및 지속가능성 등과 연계하여 조망한 도서들은 교양도서가 지향해야 할 통합적 사고와 공공적 가치를 잘 보여주었다.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건강한 식생활과 요리, 정리와 수납, 원예, 여행, 생활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균형 있게 다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일상의 행복과 자기 돌봄, 생활문화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도서들이 증가하였으며, 단순한 실용 정보 제공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교육적 의미를 바탕으로 독자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도서들이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육아·부모교육 분야에서는 부모교육, 영유아 발달, 자녀 양육, 상담과 치료, 학습 및 교육방법,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활용과 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교육 문제를 폭넓게 다룬 도서들이 다수 출간되었다. 부모들이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민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연구와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QR코드 활용 등 새로운 편집 방식과 독자 친화적인 구성,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근거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창의적인 주제와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시도한 도서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의학·건강 분야에서는 노화와 건강수명, 암과 대사질환, 정신건강, 의료기술, 건강문해력, 예방의학 등 현대인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건강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일반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명존중과 의료윤리 등 공익적 가치까지 함께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심사를 통해 확인한 기술과학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기술이 특정 학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본 심사에서는 시대적 시의성과 공익성, 내용의 신뢰성, 독창성, 독자 친화성, 편집의 완성도, 그리고 교양 도서로서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에 임하였다. 무엇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과학기술과 인간,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도서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이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문화와 올바른 부모교육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건강문해력 향상과 미래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민의식 함양에도 의미 있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ㅇ 예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상정된 도서들은 독자에게 교양도서로서의 역할과

성격에 부합되는 도서들이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신 분과별 심사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종합한 결과를 총평하고자 합니다.

공연/미디어 예술 분야는 다양한 추천 도서 중에서 시대적 문학적 맥락을 함께 조명한 도서와 인간적 관점에서 삶의 확장을 해석하거나 현대인에게 전통문화를 일깨우는 도서들과 창작과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도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추천된 도서는 기획 완성도, 편집의 충실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고 대중의 관심도가 높고, K컬처 분야와 AI예술의 담론들을 다룬 도서들이 추천되었다.

디자인/사진 분야는 사진, 시각예술,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도서 중에서 현대사회가 가진 삶의 아픔과 희망의 메시지, 예술에 대한 다채로운 전개와 스펙트럼을 보여준 도서와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다룬 도서가 선정되었으나 향후에는 예술적 환경과 새로운 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도서가 균형적으로 집필되어 다양한 담론의 예술도서가 추천되기를 기대한다.

미술/미학1 분야는 전통 예술의 본질을 사유할 수 있게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식과 보편적 깊이를 조화롭게 다루어 독자들에게 미술 감상을 확장할 수 있는 도서가 선정되었다. 코로나 이후 예술 공유 방식의 변화에 부흥한 도서를 관심의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미학적 인문학적 사유가 돋보이는 도서들로서 예술에 깊은 사유를 원하는 독자의 성찰에 부합하는 도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미술/미학2 분야는 전통 예술의 상징체계 분석부터 현대추상예술과 미학에 아우르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도서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미학의 담론을 동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교양서와 에세이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 미술가의 삶을 복원하는 서사적인 작업과 아카이브 형태의 시도에 주목하였다. 또한 미술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포용과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미학적 고증, 기획의 독창성과 서사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음악/스포츠 분야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가 전통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일반 감상자들을 위한 도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음악사, 음악가, 특정 음악적 주제에 대한 세밀한 전개를 QR코드로 유튜브 콘텐츠에 연결하여 음원을 제시한 도서 등이 주목받았다. 이들 도서 중에서 디지털 인터넷 매체로 확장하고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스포츠를 단순한 경기 기록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적 가치와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다양한 시각에서 서

술되어 일반인에게 활용성 높은 도서를 선정하였다.

ㅇ 언어

한국어 소분과 후보 도서들은 초등용 학습서, 기타 우리말이나 한자(어) 또는 (한)국어 교육 관련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상 국어생활, 문해력, 어휘력, 맞춤법, 한자, 한문, 글쓰기와 말하기 등 언어 교양 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초등, 청소년 독자를 대상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와 어휘, 맞춤법, 신문 활용 도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초 문해력 강화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특성과 우리말 문화, 실제 언어생활의 문제를 다룬 도서들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이한 언어로 기술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고, 이는 일반 언어 사용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후보 도서들은 학습 자료로서의 실용성과 교양도서로서의 가치, 독서문화 확산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기타외국어 소분과 후보 도서들의 특징은 언어 학습 다각화를 모색한 서적이 다수라는 점이다. 타언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문 등의 주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입문부터 고급 수준까지의 학습서, 개별 언어의 속담, 격언 등 언어와 문화의 이해 관련 교양서, 비즈니스 영어 가이드북, 역사적 일화와 도해를 곁들인 어휘와 어원의 학습, 실제 명문 또는 대사를 활용한 언어문화 배경과 학습, 최근 사회적 이슈인 4차 산업, SNS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응과 관련된 통찰, 그리고 언어학 입문서 등의 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의 후보 도서들은 다양한 인문·언어의 기원, 본질과 현상, 번역, 정치사회적 언어사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용적 내용을 제공하려고 한 것이 돋보인다.

다수의 도서들은 단순한 내용 서술을 넘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지침 제공이나 필사, 그림책 활용 등과 같은 참신한 멀티모달 저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독자의 편의성 제고를 지향하였다.

전반적인 특징은 요즘 수요가 많은 한국어나 영어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외국어, 영화나 문학 작품 속 명문들에 관련된 실용적 교양도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 반하여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관찰을 근거로 한 도서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ㅇ 역사/지리/관광

본 분과에서 출품되어 선정된 교양서적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다양성의 추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 지리, 역사를 막론하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기존에 덜 관심을 가지던 지역과 시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 한국의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거나 이해도가 떨어졌던 지역에 관한 교양서적들이 상당수 등장한 점은 고무적이고, 한국 독서 문화의 편향성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획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반면 은퇴한 교수, 교사, 공무원, 군인 등에 의한 신변잡기적 여행안내서나 여행기 등도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교양서 중에는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포함한다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평이하면서도 깊이 있는 교양서로서의 자질을 충분 갖추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은 듯하다. 출판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좀 더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지역이나 시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제고된 점, 가독성이 높으면서도 관련 연구를 충분히 섭렵하여 높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서가 많아진 점, 광복 80주년이나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이 반영된 시의성 높은 교양서가 늘어난 점, 번역서의 경우에도 뛰어난 원서의 선택과 번역의 수준이 상당히 제고된 점,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2개 이상의 특정 학문분과를 융합함으로써 다학문적 접근의 유용성을 보인 서적이 눈에 띄는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